

# 한국에 근대과학으로서의 화학 소개한 '에드워드 밀러'

글 | 박성래 \_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서울 마포구 합정동 로터리와 강변도로 사이에는 양화진 외인 묘지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몇몇 외국인들의 가족 묘소가 있다. 그 가족 단위 묘역 가운데 하나가 밀러 일가 3명의 안식처다. 320여 명의 묘소 가운데 들어 있는 밀러 일가는 어머니 엘리자베스, 그녀의 아들 에드워드, 그리고 그 며느리 마티 등이다.

어머니 엘리자베스 H. 밀러(1840~1919)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되어 1901년 아들 에드워드 H. 밀러(1873~1966, 한국 이름 : 밀의두)와 함께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머니는 61세였고, 아들 에드워드는 28세였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이미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같은 교회의 마티 헨리(1873~1966)와 이듬해 결혼했다. 이들 셋이 모두 지금 양화진에 묻혀있는 것이다.

## 선교 위해 어머니와 함께 조선행 결심

에드워드는 연희전문에서 화학을 가르친 화학 교수였다. 한국에 처음으로 화학이란 근대과학의 한 분야를 소개한 과학자라고 할 수 있다. 187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난 그는 가족과 함께 1880년에는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 그는 1892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등학교를 마쳤고, 1898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옥시덴털 대학을 졸업했다. 지금도 자그마한 대학으로 남아있는 이 학교는 원래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부르짖으며 설립된 대학이었다. 그는 이 대학을 나와 다시 신학교로 진학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재학중이던 1898~1901년 사이에 이미 조선에서 활동중이던 빈튼 선교사의 조선 교육에 관한 강연을 듣고, 선교사로 한국에 나가기 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빈튼은 우리 근대의학의 도입과도 관련 있는 인물이다. 1885년 4월 미국 선교의사 알렌이 처음 세운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혜원'은 보름 만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꿔서 운영하였다. 1887

년 알렌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뒤를 이어 제중원을 맡았던 헤론은 1890년 이질로 사망했다.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빈튼이었다. 그가 언제 미국에 가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강연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에드워드 밀러가 1898년부터 1901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빈튼의 강연을 듣고 조선행을 결심했던 것으로 보아 이 무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그의 어머니는 이미 남편을 잃고 아들 에드워드와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조선에 오게 된다. 어쩌면 그들 모자는 함께 빈튼의 강연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미국에서는 아시아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것이 그야말로 바람직한 사회봉사 활동으로 여겨졌던 시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헌금도 하고 실제로 선교사로 나서기도 하던 그런 시절이었다.

실제로 밀러는 이런 과정을 거쳐 선교사로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선교가 주목적이었지 화학 교수는 부수적인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의 과학 도입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특히 그는 연희전문학교가 1915년 수물과 제1회 학생 4명으로 이과 교육을 시작하자, 바로 그들에게 화학을 가르쳤다. 실제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이공계 대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학과를 시작한 사람들은 미국 선교 교사 세 명이었는데, 화학 교수로 밀러, 물리학 교수로는 베커, 그리고 천문학 교수로 루퍼스가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밀러가 가장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1918년부터 연희전문학교 화학교수로 재직

그는 이렇게 연희전문에서 1942년까지 화학 교수와 이사로 활동했다. 연희전문학교요람 1939년호를 보면 밀러 교수는 4학년 담임



1935년 6월 9일 산교회 예배당 신축기념 기념 사진(초대 당회장: 밀의두 선교사)

이면서 응용화학(화학공학) 4학년 4시간을 가르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연희전문에서 화학을 가르친 것은 1918년 9월 이후의 일이었다. 연희전문 수물과가 4명의 학생을 가지고 개교한 바로 그 해에 그는 아내의 병 때문에 휴가를 얻어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1918년 8월에 한국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첫수물과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기간에 그는 1915년부터 1년 반 정도를 캘리포니아대 대학원에서 화학과 지질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석사 학위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에 상당한 자격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어서 안식년을 얻어 캘리포니아 샌타 바버라의 고등학교와 초급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한국에 오느라 중단했던 신학 공부를 마쳐 학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3년 반만에 조선으로 돌아온 다음인 1918년부터 그는 연희전문 화학 교수로 제대로 일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사이 공부하여 그의 화학자로서의 실력은 더욱 좋아졌을 것이었다.

그의 학구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25년 두번째 안식년을 얻은 그는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원에 들어가 정식으로 화학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받고 안식년을 연장하여 1927년에는 이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게 된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수소의 이온 활동이 비타민A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되어 있다.

그는 연희전문이 개교하기 전에는 경신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쳤고, 1905년부터는 이 학교 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1906년 부인과 함께 '초학지지'를 지어 출판했는데, 세계 지리를 소개하는 초보적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유감스럽게 이 책이 지금 어디가에 남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914년에는 '천로지남', 1938년에는 '예수께서 구원하심'이란 책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천로지남'은 원문이 '턴로지남'으로 'The Traveller's Guide from death to Life'란 영어 책을 밀리가 번역해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그 사진을 볼 수도 있다. 가로 10, 세로 22cm의 책인데, 영국의 한 교인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 조선예수교서회에서 1918년에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낸 책이란 화학 책이 아니라 기독교 서적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는 한국 역사에서 과학자보다는 선교사로서 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으로 그의 이름을 조사하다보니 밀리는 일산교회와 응암교회의 설립자라고 소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 그는 1905년 11월부터 감리교와 장로교 합동으로 영어로 간행하기 시작한 선교사 잡지 '코리아 미션 필드'에 많은 글을 써 남기기도 했다. 주로 한국에서의 기독교 선교 문제와 교육, 여행 등을 주제로 한 것들이다. 1933년 봄에는 밀리의 한국 선교 생활 33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가 서울에서 있었다는 기록도 당시 동아일보 등에 보인다.

#### 과학자로서보다 선교사로서 더 활발히 활동

밀리는 1935년 9월부터 1년 동안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돌아가는 연희전문을 위한 모금 활동에 열심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학교 도서관에 199권의 책을 기증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그는 1941년 12월 27일 일제의 경찰에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이듬해 5월 26일까지 반 년 동안 용산 감옥에 투옥되었다. 언더우드와 함께 그는 조선을 떠나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지만, 이쯤 되어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언더우드와 밀리는 결국 며칠 뒤인 6월 1일 일본 경찰에 의해 추방되었다.

이렇게 미국으로 추방당한 밀리는 1942년부터 미국에 살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일했다. 그리고 한국이 해방되자 미군과 함께 한국에 왔으나 곧 돌아갔다. 전쟁이 끝난 1953년 7월 연희대학교는 장기 근속자들을 표창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이 때 그는 26년 근속자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밀리는 1966년 6월 6일 미국에서 작고했지만, 그의 유언에 따라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양화진에는 그의 어머니와 1905년부터 1912년 사이에 두 번이나 정신여학교 5대와 8대 교장을 지냈고, 찬송가 수십 곡을 번역했으며, 정신학교 옛 교가도 작사 작곡했던 그의 아내 마티 밀러도 함께 묻혀 있다. ㉞